

##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대책

임창호\*

### 〈요약〉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이 되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 및 범죄피해, 위장탈북 간첩, 재입북 사건, 해외 위장망명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 부적응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일탈 문제들이 우리 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한국으로 왔지만 문화적인 이질감, 편견, 사회주의 체제 습성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한국 사회 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한국 사회의 최저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의 주요 목표는 경제적 성취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범죄를 범하거나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실태를 분석한 후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에 대한 각종 문헌들을 연구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관련 사례의 경우에는 뉴스기사를 참고하고, 특히 신변보호 담당관과 심층 인터뷰를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양시키고, 초기 적응교육을 내실화하고, 취업보호 및 정착도우미제도를 체계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유형별로 관리하고, 북한이탈주민 관리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경찰관서 내에 탈북자 관리부서를 신설하고, 교도소 재소자의 교육을 강화하며,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약 북한이탈주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신변보호 경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해외여행시 사전에 신변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법률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화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북한이탈주민, 범죄행위, 범죄피해, 보안경찰, 신변보호 담당관

\*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b>목 차</b>
------------

- |   |
|---|
| I. 서론<br>II. 이론적 논의<br>III. 북한이탈주민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실태분석<br>IV. 북한이탈주민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예방대책<br>V. 결론 |
|---|

## I. 서론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이 되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 위장탈북 간첩, 재입북 사건, 해외 위장망명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 부적응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일탈 현상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한국으로 왔지만 문화적인 이질감, 편견, 사회주의 체제 습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한국 사회 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 입국 후 12주 동안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한국 사회 적응교육을 받은 후에 지역하나센터(지역적응센터)에서 사회적 관련 집중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등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한국 사회의 최저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돈을 벌기 위한 과정에서 범죄를 범하거나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율 연구에 의하면,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10%가 살인·강도·상해 등 강력범죄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한국 사회 전체 평균 범죄율 4.3%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재범률 역시 우리나라 전체 재범률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윤영, 2007: 38).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율 연구에 의하면, 응답자 중 23.4%가 범죄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기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가 21.5%에 달하고 있다(장준오·고성호, 2010: 133). 연구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범죄행위의 가능성도 높지만, 동시에 범죄피해의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행위 또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이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호 및 정착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만약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 상황을 야기하는 개인적·사회적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 사회에 유입될 북한이탈주민과 한국 국민의 정서적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그 결과 한국 사회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 사회 및 국민 전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은 한반도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초래된 문제이지만, 향후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도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여겨진다.

최근에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예방대책들이 신속하게 수립·시행되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의 불안정 유발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연구는 주로 보호 및 정착지원 제도에만 주된 관심이 있었을 뿐이고, 그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실태 파악 및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는 거의 행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실태를 분석한 후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에 대한 각종 문헌들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관련 사례의 경우에는 뉴스 기사를 참고하고, 특히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과 심층 인터뷰를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 Ⅱ. 이론적 논의

### 1. 북한이탈주민 현황

#### 1) 연도별 입국현황

<표 1>의 북한이탈주민의 입국현황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6년 8월 현재 29,688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2016년 말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0,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여겨진다. 전체 북한이탈주민들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71%로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김정일 사망 후 2012년부터 북·중 국경통제 강화 및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등으로 인하여 연간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표 1>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8월)	합계
남(명)	608	662	591	795	404	369	305	251	181	8,684
여(명)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713	21,004
합계(명)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894	29,688
여성 비율	78%	77%	75%	71%	73%	76%	78%	80%	80%	71%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 2) 입국 및 정착단계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합선센터)에서 합동조사를 받고,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심의에 따라 ‘보호 결정’이 내려지면 하나원에서 12주 동안 사회적응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은 뒤,<sup>1)</sup> 5년간 거주지 보호를 받게 된다.

1) 하나원 교육과정은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46시간), 진로지도 및 직업훈련(157시간), 우리 사회의 이해 증진(138시간), 초기 정착지원(51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법교육과 관련이 있는 것은 ‘우리

지역하나센터에서는 하나원을 수료하고, 거주지에 편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병을 인수하고,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하나센터는 거주지에 편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초기 집중교육(2주: 60시간)을 실시하고, 사후 지역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이 신속하게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표 2〉 북한이탈주민 입국 및 정착단계

입국 및 정착단계	내용
보호요청 및 국내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요청시 외교부, 관계부처에 상황보고 및 전파</li> <li>• 해외공관 또는 주재국 임시보호시설 수용</li> <li>• 신원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 입국 지원</li> </ul>
합동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 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국정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li> <li>• 조사종료 후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으로 신병 이관</li> </ul>
보호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 결정</li> <li>• 보호결정 세대단위 결정</li> </ul>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 (12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적 이질감 해소, 심리안정, 진로지도 상담 등</li> <li>• 가족관계등록, 주거알선 등 정착준비를 마친 후 거주지 전입</li> </ul>
거주지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안전망 편입(생계·의료급여)</li> <li>• 취업지원: 고용지원금, 무료 직업훈련, 자격인정 등</li> <li>• 교육지원: 특례 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li> <li>• 보호담당관제: 거주지·취업·신변보호 담당관제 운영</li> </ul>
민간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적응센터(지역하나센터) 지정 운영</li> <li>• 정착도우미제: 민간자원봉사자와의 연계</li> <li>•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종합상담, 생활안정, 취업, 교육 및 장학, 연구, 인식개선에 관한 지원 제공과 함께 민간자원 역량을 연계하는 거점 역할</li> </ul>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사회의 이해 증진' 과정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역사, 문화, 생활법률, 현장체험(시장구매, 가정체험, 도시체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북한이탈주민 탈북행위의 특성 및 경향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탈북행위의 특성 및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장준오·이정환, 2006: 38; 장준오·고성호, 2010: 53-61).

### 1) 탈북 동기의 변화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가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북한체제에 대한 불만 때문에 탈북하는 ‘망명형 탈북’이 대부분이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는 식량난을 해결하고자 탈북한 자들이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던 중에 남한에 가면 정부지원을 받아 잘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입국하는 ‘생계형 탈북’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다 나은 삶을 찾아 탈북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 2) 높은 탈북 여성 비율

최근에 탈북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여성의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노동력과 성에 의한 은신처를 확보하기 용이하고, 군복무 등으로부터 자유로우며 감시·감독을 덜 받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탈북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 3) 가족 동반 탈북의 증가

가족을 동반한 탈북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중 가족 단위 입국자가 전체의 50% 정도가 된다. 이것은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이나 중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함께 입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 4) 높은 20, 30대 비율

2015년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중 57%가 20, 30대로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젊어지고 있고, 40대의 비율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노동력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할 수 있고, 중국에서 힘든 과정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 5) 높은 노동자·무직·부양가족의 비율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직업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중 86%가 노동자, 무직·부양가족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한국 내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이 각종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어 북한이나 중국을 탈출하여 한국 사회로 입국하게 된다.

### 6) 입국수법의 다양화

입국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휴전선을 넘거나 선박을 이용하여 직접 남한으로 입국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이나 제3국에 체류하던 중에 한국대사관이나 외국대사관에 잠입하여 망명을 요청하거나, 국제 정기 여객선이나 화물선을 통한 밀항은 물론이고, 위·변조 여권을 이용하거나 중국 공·항만 관계자를 매수하여 밀·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부적응 원인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 사회 적응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인들로 인하여 사회 부적응을 겪고 있다(장준오·고성호, 2010: 33-34; 임안나·강길봉, 2013: 96-97).

### 1) 정치사상적 부적응

집단주의 및 전제주의적 사고에 익숙한 북한이탈주민은 처음에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고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한국 사람들보다 더 개인주의적 성향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도,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자신들과 같은 사회적·약자에 대해서는 배려하지 않는 비인간적 사회로 간주하고 있다.

### 2) 경제적 부적응

경제적 문제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해결해 주는 사회주의 체제에 익숙한 북한이탈주민들은 개인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 즉, 북한에서는 국가가 밥공장이나 탁아소 같은 것들을 운영하여 북한주민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돈이 있어야 하므로 정착금이나 생활 보조금만으로 생활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북한이탈주민 사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실업과 저소득이다. 북한이탈주민들

중에서 전문직이나 사무직과 같은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이고, 대부분 무직이거나 단순 노동직에 종사하고 있어서 북한 사회에 있을 때 보다 계층의 하향 이동을 보이기도 한다.

### 3) 문화적 부적응

북한이탈주민들은 언어·가치관 등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자존심과 직선적인 대인관계로 인해서 회사 관리자와 갈등을 겪게 됨으로써, 한 직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지 못하고 직장을 쉽게 그만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북한에서는 작업을 빨리 끝내기 보다는 시간을 때우는 습관이 있어서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일부 고용주들은 북한이탈출신 노동자들이 게으르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 4) 사회적 부적응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다. 북한이탈주민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위 사람들과 원만하게 어울리지 못하고, 주변인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타인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남한에 연고가 거의 없는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 사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회연결망이 부족하고, 교회 등 종교단체를 제외하고는 한국 주민들과 친하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서 한국 사회의 부적응 현상이 심화되기도 한다.

### 5) 심리적 부적응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는 쉽게 친숙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위 사람들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들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에 대한 걱정 때문에 상당기간 동안 심리적 안정을 찾지 못하고, 한국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한국 사회 적응과정에서 고독감과 소외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과정에서 겪은 생명의 위협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



레스 장애’,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 한국 사회 문화의 이질감, 편견 및 부정적 시각 등으로 인해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 4. 선행연구 분석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행위에 관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는 김윤영(2007)과 장준오·고성호(2010)의 연구이다.

<표 3> 북한이탈주민 범죄행위 관련 선행연구 분석

방법	연구방법	범죄원인	예방대책
김윤영 (2007)	문헌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획일적이고 제한적 사고로 인한 가치관 혼란</li> <li>•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li> <li>•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자기 중심의 의식 구조</li> <li>• 직장에서의 자발성 부족</li> <li>• 일에 대한 질적 향상 및 이익추구에 대한 무관심</li> <li>• 문제 해결에 대한 집단 의존 성향</li> <li>• 사회성 부족으로 인한 융화 문제</li> <li>• 북한 가족에 대한 죄의식 및 도피생 활로 인한 피해의식</li> <li>• 외로움, 시기심 등의 정서적 장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입국 및 보호결정 기준 강화</li> <li>• 입국 전 범죄경력 정보의 데이터 베이스화</li> <li>• 범죄 우려자 등을 관리대상자로 선정·관리</li> <li>• 신변보호담당 보안경찰의 북한이탈주민 생활지도 철저</li> <li>• 무료 법률상담, 범죄유혹에 대한 역할연기, 퀴즈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li> <li>• 형사법과 범죄피해 사례 매뉴얼</li> </ul>
장준오 · 고성호 (2010)	교도소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재소자(48명)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머튼의 아노미이론</li> <li>• 사회해체이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정한 의미의 자립·자활을 증진하는 정책으로의 전환</li> <li>• 북한이탈주민의 유형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 정책</li> <li>• 다양한 유형의 자원봉사자 지원 네트워크 체계화</li> <li>• 서비스 일원화</li> </ul>

## 2)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에 관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는 장준오·이정환(2006), 이창무 외 3인(2010)의 연구이다.

<표 4>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관련 선행연구 분석

방법	연구방법	범죄피해 실태	예방대책
장준오· 이정환 (2006)	2006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20세 이상 북한이탈 주민 214 명의 범죄 피해 경험을 조사	26%가 사기범죄 피해를 당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기 피해의 우선적인 대책 마련</li> <li>• 일상생활에 대한 법률교육 강화</li> <li>• 여성 사회화에 대한 재교육</li> <li>• 기획탈북 브로커에 의한 문제점과 위험성을 고지</li> </ul>
이창무 외 3인 (2010)	2000년 1월 1일 이후 한국에 입국한 2010년 6월 현재 전국 만 20세~65세 이하인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범죄피해 경험을 조사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200명 중 10.8%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계 중심의 협약체결</li> <li>•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예방 지원에 대한 표준안 마련</li> <li>• 통합 연결망 구축</li> <li>• 네트워크를 활용한 일대일 멘토링</li> </ul>

## Ⅲ. 북한이탈주민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실태분석

### 1. 북한이탈주민 범죄행위의 실태분석

#### 1) 북한이탈주민 범죄행위의 발생현황

##### (1) 범죄행위 현황

북방문제연구소가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범죄율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를 보면, 2006년 남한에 정착한 2,019명 중 285명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2000년 39건, 2001년 54건, 2002년 89건, 2003년 90건 수준에 그쳤으나, 2006년에는 대폭 증가한 것을 보여 주고 있다(김윤영, 2007: 39).

<표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98년부터 2007년 1월까지 전체 북한이탈주민

8,885명 중 10.1%에 해당하는 899명이 살인·강도·상해 등 강력범죄를 포함한 형사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20%에 해당하는 1,687명이 교통사범을 포함한 범죄 경력자로 나타나고 있어서 5명 중 1명이 범죄 유혹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북한이탈주민 범죄현황(1998~2007. 1)

(단위: 명)

계	형법범								특별법범		
	소계	살인	강간	상해	폭력	절도	사기	문서위조·변조	기타	교통사범	기타
1,687	899	5	12	58	603	64	36	46	75	603	185

자료: 김윤영, 2007: 38.

## (2) 교도소 수용자 현황

2010년 6월 전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유형을 분석한 결과, <표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마약범죄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폭행, 살인 순으로 강력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의 연령은 30~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저지르는 범죄비율은 한국 사람의 범죄비율에 비해 2배 이상 높으며, 재범 혹은 전과비율 또한 4.5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 범하는 범죄는 정작 초기의 일회성·우발성 범죄와는 달리, 최근에는 계획적·조직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장준오·고성호, 2010: 20).

〈표 6〉 북한이탈주민 재소자 현황(2010년)

범죄유형	마약거래 및 복용	폭력 (살인 제외)	살인	재산범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인원(건)	17명(18건)	12명(13건)	10명(10건)	7명(8건)	3명(3건)

자료: 장준오·고성호, 2010.

또한, 최근 북한이탈주민 교도소 수용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표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북한이탈주민 수용자 수는 지난 2011년 51명에서 2016년 8월에는 129명으로서 153%나 늘어났다. 특히, 남성은 지난 5년 대비 136% 증가한 반면에, 여성은 350%가 증가하는 등 탈북여성의 수감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표 7> 북한이탈주민 교도소 수용자 현황

(단위: 명)

연도	계	남자	여자	비고
2011	51	47	4	
2012	68	65	3	
2013	87	78	9	
2014	99	87	12	
2015	112	97	15	
2016	129	111	18	2016.8.26 기준
연평균 증가율	20%	19%	35%	
지난 5년 대비 증가율	153%	136%	350%	

자료: 통일부 국회제출자료, 2016.

또한, 북한이탈주민 교도소 수용자의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표 8>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마약류(38명)가 가장 많았고, 폭력(15명), 사기횡령(13명), 살인(11명), 절도(5명), 강도(4명) 순이며, 지난 5년 대비 폭력이 400% 증가하였다. 형량별로는 노역·미결(52명)으로 가장 많았고, 5년 미만 징역(54명), 5년 이상 징역(8명), 10년 이상 징역(6명), 15년 이상 징역(6명), 무기(3명) 순이었다.

<표 8> 북한이탈주민 교도소 수용자의 범죄유형별 현황

(단위: 명)

연도	계	절도	사기/횡령	강도	살인	폭력	마약류	기타
2011	51	3	6	2	8	3	15	14
2012	68	2	16	2	10	4	11	23
2013	87	3	16	3	9	13	12	31
2014	99	7	13	3	11	11	17	37
2015	112	5	12	6	12	14	28	35
2016	129	5	13	4	11	15	38	43
연평균 증가율	20%	11	17	15	7	38	20	25
지난 5년 대비 증가율	153%	67	117	100	38	400	153	207

자료: 통일부 국회제출자료, 2016.

## 2) 북한이탈주민 범죄행위의 발생원인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마약류 범죄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증가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김운영, 2007: 40-41; 박영숙, 2013: 88-89; 최영신, 2015: 164).

### (1)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일반적으로 인구 수가 증가하면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 건수도 증가하는데,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 (2) 정부의 정착지원금의 감소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이 급증하게 됨으로써 개인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 등이 과거보다 줄어들고, 자립·자활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경제적 지원이 감소되고 있어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생활고로 인하여 범죄유혹에 쉽게 빠지고 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 5명중 4명은 정상적인 남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획일적이고 경직된 사고

북한이탈주민들은 어렸을 때부터 독재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하는 교육을 받다보니, 사고가 획일적이고 경직되고 제한적이며, 오직 명령에 충성하는 수동적인 태도에 익숙해 있다. 그 결과, 자유로운 남한 사회에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회에 대한 각종 불만이나 갈등을 겪다보면 범죄에 쉽게 빠지게 된다.

### (4) 한국 사회의 법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입국한 후 하나원에서 12주 동안 사회적응교육을 받지만, 단기간 교육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결국 한국 사회의 법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법률에 대한 지식 부족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에 있으면서 북한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결과가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북한 사회의 특수성으로 인한 왜곡된 법의식, 1당 독재를 넘어서 1인 독재체

제에 길들여진 후진적 법의식, 그리고 극도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인권침해 경험 등은 북한이탈주민이 범죄자가 되거나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 (5) 온정적인 기대 심리

한국 사회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온정적이라는 기대 심리도 범죄유발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사선을 넘어 왔다는 인식 때문에 법규를 위반해도 관대한 처분을 할 것이라는 잠재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음주운전이나 폭행범죄를 쉽게 범하기도 한다.

## 3) 북한이탈주민 범죄 사례

북한이탈주민들이 범한 범죄와 관련하여 뉴스기사에서 보도된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마약류범죄

아기 기저귀에 일명 ‘얼음’ 또는 ‘아이스’라고 불리는 필로폰을 숨겨 밀반입하다 적발되었으며(뉴스시스, 2010. 1. 29), 수감된 마약사범 17명 중 16명이 탈북자 네트워크를 통해 마약을 거래하였고(동아일보, 2011. 2. 8), 탈북자들로 이루어진 밀수단 6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 600g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시켰으며(MBC 뉴스, 2013. 12. 19), 히로뽕을 몰래 들여와 판매·투약한 혐의로 북한이탈주민 12명이 붙잡혔으며(국제신문, 2014. 7. 17), 북한산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었고(중앙일보, 2016. 5. 1), 북한산 필로폰 밀반입·유통사건 수사 결과, 입건한 25명 중 탈북자가 16명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일보, 2016. 6. 4).

### (2) 보험사기범죄

2008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모두 5차례 입원해 7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842만 여원을 받아 챙긴 북한이탈주민 130명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고(경향신문 2010. 10. 26), 탈북주민 15명이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허위로 장기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과 생계비를 챙겼으며(연합뉴스, 2012. 9. 6), 탈북자 155명으로부터 50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국내 총책 이모씨를 구속하고, 홍모씨 등 모집책

15명을 입건하였고(YTN 뉴스, 2012. 11. 10), 탈북자들로부터 알아낸 71살 김 모씨의 병원을 찾아가 가짜 진단서를 발급 받고 입원한 것처럼 꾸며냈다(MBC 뉴스, 2014. 1. 14).

### (3) 보이스피싱범죄

보이스 피싱으로 5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18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단 22명 중 북한이탈주민은 7명이며 이들은 모두 범행을 주도한 핵심인물이었다(국제신문, 2014. 7. 17).

### (4) 폭력범죄

술에 취해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폭행해 중상을 입혀 실형을 살고, 출소하는 등 전과만 27범인 북한이탈주민을 검거했다. 처음에 받은 정착금을 술과 경마에 모두 날리고 노숙까지 하고 있었다(조선일보, 2012. 9. 25).

### (5) 성폭행범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로 탈북자 출신 A를 긴급체포하여 조사하였고(연합뉴스, 2016. 8. 11.), 2015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자동차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강간 등)로 탈북자 최모씨를 검거하였다(세계일보, 2016. 6. 4).

## 2.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의 실태분석

### 1)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의 발생현황

#### (1) 범죄피해 현황

2006년 범죄피해 설문 결과, 북한이탈주민 응답자 214명 중 50명이 사기, 절도, 강도, 폭행 및 성폭력 등의 범죄피해 91건을 당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개인의 피해건 수로는 최저 1건에서 최고 8건의 범죄피해를 입었다. 응답자 중에서 범죄피해자는 전체의 23.4%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03년 범죄피해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범죄피해율 11.0% 보다도 2배 이상 많은 범죄피해율이다(장준오·이정환, 2006: 79).

구체적으로 사기범죄 피해건수가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폭행 및 상

해 피해가 11건, 자동차 부품 절도 피해와 대인절도 피해가 각 2건, 주거침입절도 피해, 대인강도 피해,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가 각 1건씩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1.5%가 사기범죄의 피해자로서, 한국 사기범죄의 전체 범죄발생 비율 0.5%에 비해 무려 43배 이상 발생하고 있다.

〈표 9〉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현황

(N=214)

범죄	범죄피해(명)	범죄피해 비율(%)
사기범죄	46	80.7
폭행 및 상해	4	7.0
자동차 부품 절도	2	3.5
대인절도	2	3.5
주거침입절도	1	1.7
대인강도	1	1.7
성폭력 및 성희롱	1	1.7
총계	57	100.0%

자료: 장준오·이정환, 2006.

또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은 범죄피해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표 10>에서 보는 것과 같이, 범죄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북한이탈 주민은 130명으로 전체 1,200명 중에서 10.8%를 차지하고 있고, 총 피해건수(149건)를 기준으로 보면 범죄피해율은 12.4%로 추정된다. 가장 빈발하는 범죄피해유형은 전체 149건 중에서 사기범죄가 92건(61.8%)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폭행·상해범죄가 44건(25.4%)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에는 개인 간의 돈거래 사기와 명의도용이라고 응답하였다(이창무 외 3인, 2010: 11).



〈표 10〉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실태(중복응답 허용)

(N=1,200)

범죄피해유형		피해건수(%)	피해율
폭력범죄	폭행, 상해	34(22.8%)	2.8
	성폭력, 성희롱	10(2.6)	0.8
재산범죄	일자리(구직) 사기	17(11.4)	1.4
	투자(부동산 등) 또는 알선 등의 사업 사기	22(14.8)	1.8
	북한가족 초청 사기	12(8.1)	1.0
	혼인사기	6(4.0)	0.5
	보이스 피싱(전화 사기)	35(23.5)	2.9
	절도	6(4.0)	0.5
	기타	7(4.7)	0.6
총 피해건수		149(100.0)	12.4(100.0)

자료: 이창무 외 3인, 2010.

## 2)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의 발생원인

### (1)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 사회문화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의 법체계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범죄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사기범죄자들이 한국 사회의 정보를 잘 파악하지 못한 북한이탈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감언이설로 설득하면, 대다수의 북한이탈 여성들은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 (2) 북한의 가부장적 사회문화의 영향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 여성들 중 상당수가 북한이탈 출신 남편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아내에게 폭언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 전근대적인 사회문화의 영향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북한이탈 출신 남편들은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북한이탈 출신 아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 이유는 북한이탈 출신 여성들의 경우 한국

에 도움을 요청할 가족이나 친척들이 거의 없어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에서 여성에 대한 성희롱 및 성폭력은 경미한 죄이며, 직장에서도 남성이 여성에게 폭언, 욕설, 성적 농담을 일삼는 것이 용인되고 ‘무슨 일이 생겨도 여자가 행실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 (3) 경제적 어려움

북한이탈주민은 탈북용역 계약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한 사기범죄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각종 정착금 및 지원금은 사기범죄자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 3)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의 사례

북한이탈주민의 겪는 범죄피해와 관련하여 뉴스기사에서 보도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사기범죄

한 북한이탈주민은 지인에게 170만원을 빌려 입금하고 간호조무사 수료증을 받아 하나월에 제출했지만 공인되지 않은 수료증이기 때문에 정착금을 받을 수 없었으며(내일신문, 2013. 9. 13),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 받지 못하거나 투자 사기를 당하는 등 금전적 피해를 보고 법률 소송까지 가는 북한이탈주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아주경제, 2016. 8. 18).

### (2) 성폭행

서울시 천주교 성폭력상담소가 2013년 8월부터 141명의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17명이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한국일보 2015. 1. 24).

### (3) 탈북자의 탈북자 대상 범죄

중국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하여 탈북자들을 속인 탈북자 출신 다단계 사기범들

이 불잡했다. 탈북자들은 계약서 한 장 없이 정부 보조금과 주택 담보 대출까지 받아 최고 9천만 원 까지 돈을 입금했으며, 피해를 본 탈북자는 155명이고, 금액은 50억 원이 넘었다(매일경제 2012. 10. 30).

탈북자 이모씨는 지난 2011년 1월 남편과 남편의 지인 2명을 끌어들여 다른 탈북자 임모씨와 임모씨의 딸을 납치했다. 이씨는 임씨가 탈북을 도와 준 브로커에게 지급해야 할 사례금 300만원이 미지급 상태임을 알고 그 돈을 자신이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세계일보 2016. 6. 4).

## IV. 북한이탈주민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예방대책

### 1. 북한이탈주민 범죄행위의 예방대책

#### 1)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고양

북한이탈주민들이 범죄를 범하는 주된 이유들 중 하나는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을 고양하기 위해서 이들에 대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 보다는 가치 중립적인 호칭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북한이주민’ 또는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한국 국민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먼저 열린 마음을 갖고 대함으로써 이들이 편견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 한국 사회의 일원임을 진심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는 법치주의 국가라는 점과 법준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문제 발생시 물리적 행동을 자제하고 법질서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

#### 2) 초기 적응교육의 내실화

북한이탈주민 정착교육기관인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는 ‘우리 사회의 이해 증진’ 과정을 운영하여 생활법률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

러한 단기간 교육만으로는 한국의 법체계를 이해하는데 매우 부족하다.

특히, 북한에서는 음주운전 자체가 범죄로 인식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북한이탈 주민들이 한국에서 처음 범하는 범죄들 중 하나가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은 무면허 운전뿐만 아니라 다른 강력범죄들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북한에서는 수출용이나 기초의약품 대응으로 아편을 기르고 있어서,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에서의 필로폰 거래 및 투약이 큰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이것에 대한 예방교육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재소자들은 사소한 경우에도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으므로, 한국 사회에서 민주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시켜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재소자의 90% 이상이 남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 남성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준법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3) 보호담당관 제도의 체계화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편입 후 보호담당관제도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의 입장에선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업무는 여러 보안경찰업무들 중 하나이고, 북한이탈주민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신변보호 업무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의 수를 늘리고, 이들의 전문성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는 안정적 직업을 통한 자립·자활을 유도하고, 일반 국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므로, 이들의 거주지 적응을 돕기 위한 취업보호 담당관제도 또한 그 운영을 더욱 내실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 4) 적응 유형별 관리

한국 사회 정착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유형을 파악하고, 그 적응 유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촉진하고, 그들을 범죄 유혹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는 적응 유형에 따라서 차별화된 보상 및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우리의 법과 질서의 범주 안에서 안전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부류, 적당히 정부의 지원책을 이용하는 부류, 그리고 일탈 및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부류 등에 대하여 각각 차별화된, 세분화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장준오·고성호, 2010: 141).

### 5) 북한이탈주민 관리 네트워크의 정비

북한이탈주민 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주무기관인 통일부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법무부, 경찰청 등 다양한 관련 기관이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들 관련 기관 간에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장준오·고성호, 2010: 145).

먼저, 통일부는 하나원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에 대한 지원·지도·감독 역할을 철저히 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착지원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하나원’과 사후관리센터인 ‘남북하나재단’과의 협조관계가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구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지역사회에 편입된 북한이탈주민의 활동 정보와 재소자에 대한 대책을 남북하나재단 및 경찰청과 수시로 협의하는 등 제도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 예방차원에서 이들의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에 대해서도 출입국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착지원과, 하나원, 남북하나재단, 지역사회 사회복지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러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들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one-stop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6) 경찰관서 내 북한이탈주민 관리부서 신설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를 고려하여 이들을 전담 지원·관리하기 위해서 경찰청 보안국 내에 가칭 ‘탈북민 지원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경찰청 보안과 내에는 ‘탈북민 지원계’를 신설하고, 탈북민 1,000명 이상 집단거주 관할 경찰서의 보안과 내에도 ‘탈북민 지원계’를 신설·운영할 필요가 있다.

### 7) 교도소 재소자의 직업훈련 및 교육 강화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도소 재소자에 대해서 직업훈련 및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직업훈련 및 교육 시에는 수형자 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재소자가 출소한 후에는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및 직업알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별 취업담당관과의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재소자들은 우리 사회에 대한 몰이해, 경제적 소득 수준의 향상, 음주, 그리고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 등 경제적·문화적 부적응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상당 부분 남·북한 체제와 규범의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북한이탈주민 재소자 교육은 직업교육과 우리 사회의 이해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장준오·고성호, 2010: 143).

### 8)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각호에 따라 비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들은 2010년 11명을 기점으로 2011년 이후에는 3배로 증가하여 매년 약 30명 정도의 비보호 탈북자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안전망에서 내몰린 비보호 대상자들은 각종 보호 및 정착지원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어서 한국 사회의 불만세력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2.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의 예방대책

### 1)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과정의 관찰·기록·분석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 차원의 어려움과 한국 사회 부적응으로 인해서 각종 범죄를 범하거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은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범죄 취약성을 기록·관리함으로써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나원에서의 사회적응교육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을 관찰해 보면, 이들의 과거의 가치관 및 태도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편입

후 보여주게 될 행동들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원에서의 교육 및 생활과정을 철저하게 관찰·기록·분석함으로써,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 가능성이 높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록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정부로부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동안만큼은 통합적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 2)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과의 연락체계 유지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신변보호를 위해서 이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은 높은 이직율과 다른 지역에서의 거주 등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 효과적인 신변보호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이 주소와 전화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과 연락을 끊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이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이어서,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신변보호 경찰관과 연락체제를 유지하지 않는 한, 연락망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범죄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이들에게 각종 정보들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과의 연락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기간 동안 연락체계가 단절된 경우 각종 정부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해외여행시 신변안전대책 마련

북한이탈주민들은 중국이나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을 비교적 쉽게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서 중국 여행을 떠나지만, 이들은 북한 대남공작요원에게 노출되어 포섭되어 간첩으로 활동하거나 북한으로 강제 납치될 가능성이 높다.

신변보호 관리대상 탈북자(보호기간 5년)에 대해서는 신변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국가로의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지만,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된 탈북자들은 해외여행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기간의 활동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변위해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일지라도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사전에 신고하여 범죄피해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여행에서 되돌아온 경우에도 사후

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4) 일상생활에 대한 법률교육의 강화

북한이탈주민들 중 일부는 한국에서 받을 정착금 및 지원금을 담보로 입국하였는데, 그러한 정착금 및 지원금을 브로커에게 빼앗기게 되면 한국에서의 생활이 빈곤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기획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으로 송금하려다 사기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 그러한 송금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 하던 대로 서로 치고 받는 정도의 다툼이 한국에서는 폭행 및 상해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 또한, 단단계 판매와 같은 거래에서 계약서의 효력 등에 대해 자세히 몰라서 무조건 서명·날인함으로써 범죄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한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범죄피해의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만을 위한 법률 교육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장준오·이정환, 2006: 170).

#### 5) 여성의 재사회화 교육

최근에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 중에서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각종 범죄피해의 경우에도 북한이탈 여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제 거래에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이탈 여성들이 관련 생활 법률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사회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장준오·이정환, 2006: 170).

특히, 북한의 가부장적 사회에 익숙해있던 북한이탈 여성들은 한국에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도 참고 견디는 과정에서 더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민주 사회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V. 결 론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실태를 분석한 후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에 대한 문헌들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였고, 관련 사례의 경우에는 뉴스 기사를 참고하였으며, 신변보호 담당관과 심층 인터뷰를 함으로써 범죄행위 및 피해행위의 예방대책들을 제안하였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양시키고, 초기 적응교육을 내실화하고, 취업보호 및 정착도우미제도를 내실화하고, 적응 유형별로 관리하고, 북한이탈주민 관리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경찰관서 내에 탈북자 관리부서를 신설하고, 교도소 재소자의 교육을 강화하며, 비보호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약 북한이탈주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신변보호 경찰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해외여행시 사전에 신변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법률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화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당하는 범죄피해가 한국 국민들에 비해서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에 이른다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정착과 한국 사회로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원대책이 제대로 입안·추진된다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과 적응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으며, 원천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재입북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차단대책이 될 수 있다(김혜림, 2016: 69).

특히, 앞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에 대해서 더욱 과학적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파악·분석하고, 관련 사례에 대해서도 전산화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범죄 및 피해예방 교육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행위에 대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제한된 통계자료 및 사례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그 발생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종 예방대책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해서 더욱 타당성 있는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김윤영(200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안경찰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 김혜림(2016). 김정은 시대 탈북현상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에 대한 고찰. 민족연구, 66, 46-72.
- 박영숙(2013).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현황과 교정복지적 대책. 교정복지연구, 30, 71-94.
- 이창무·김주찬·한상철·신현주(2010).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실태 분석을 통한 정착 지원 거버넌스 구축방안.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임안나·강길봉(201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부적응 예방을 위한 교정복지의 역할: 신문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29, 93-117.
- 임창호(201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안경찰의 효과적인 보호 및 지원방안. 경찰학논총, 11(4), 11-119.
- 장준오·고성호(2010). 북한이탈주민 범죄실태 및 대책.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준오·이정환(2006).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일영(2015). 북한에서 사회적 일탈에 대한 처벌과 재사회화 양식의 형성. 한국경찰학연구회지, 42, 423-447.
- 조동운·김용태(201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8(2), 25-50.
- 최영신(2015). 범죄예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법교육 수요 분석. 법교육연구, 10(3), 141-169.

### 2. 기타

- 경향신문(2010. 10. 26), “보험사기 탈북자 130명 무더기 입건”.
- 국제신문(2014. 7. 17), “탈북자 주도 보이스포싱단 마약 판매까지”.
- 국제신문(2014. 7. 17), “탈북자 주도 보이스포싱단 마약 판매까지”.
- 내일신문(2013. 9. 13), “탈북민 마약·사기·성폭행 내몰려”.
- 뉴스시(2010. 1. 29), “필로폰 밀반입한 탈북자 부부...6개월 된 아들 기저귀에 숨겨”.
- 동아일보(2011. 2. 8), “수감 탈북자 중 ‘마약사범’ 가장 많다”.
- 매일경제(2012. 10. 30), “‘고수의 가능’ 탈북자 등친 탈북자”.

- 세계일보(2016. 6. 4), “대검찰청, 탈북자 범죄 분석 및 대책 마련 착수”.
- 세계일보(2016. 6. 4), “대검찰청, 탈북자 범죄 분석 및 대책 마련 착수”.
- 이주경제(2016. 8. 18), “북한 이탈주민, 사기 등 금전적 피해 많아...” “법률 소송중 민사사건이 1위”.
- 여성신문(2009. 7. 10), “북한이탈 주민 여성 가정폭력 대책 시급”.
- 연합뉴스(2012. 9. 6), “한해 수천억 탈북자 지원예산 곳곳에 ‘구멍’”.
- 연합뉴스(2016. 8. 11), “초등생 의붓딸 수년간 성폭행 혐의 탈북자 긴급체포”.
- 조선일보(2012. 9. 25), “외국인 폭력 절반이 주폭... 탈북男 26% 술중독”.
- 중앙일보(2016. 5. 1), “‘북한산 필로폰’ 밀반입해 투약한 탈북자·중국동포 무더기 적발”.
- 한국일보(2015. 1. 24),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 여성들”.
- MBC 뉴스(2013. 12. 19), “노트북 배터리에 숨겼어요... 탈북자 마약 밀수단 적발”.
- MBC 뉴스(2014. 1. 14),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탈북자들... ‘부적응 사례’”.
- YTN(2012. 11. 10), “중국 부동산에 투자” ...탈북자 상대 다단계 적발.

【Abstract】

## A Study on the Preventive Measures of Criminal Behaviors and Criminal Damages of North Korean Defectors

Lim, Chang-Ho

Most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are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formed the lowest class in South Korean society. Their main objectives are to achieve economic wealth. In this process, North Korean defectors have often committed the crime or have been criminal victim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the effective preventive measures after analyzing the actual situ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riminal behaviors and criminal damages. This research has studied of the literature on the criminal behavior and the criminal damage by North Korean defectors, utilized the relevant statistical data, cited the news for the relevant cases, and proposed the effective preventive measures of criminal behaviors and criminal damages of North Korean defectors by doing in-depth interviews with personal protection officer

First, in order to prevent criminal activity by North Korean defectors, we should uplift the identity as the members of Korean society, systemize the initial adapt education, enlarge the employment protection and the resettlement helper system, manage North Korean defectors according to adaptive type, develop the network, establish the management department for the defectors, strengthen the training of prison inmates, and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unprotected people.

Next, in order to prevent the criminal damages of North Korean refugees, we should manage vulnerable North Korean defectors effectively, maintain the liaison between the personal protection officer and North Korean defector,

arrange the personal safety measures in advance when traveling abroad, enhance the legal education for usual living in Korean society, and perform the re-education for the female socialization.

**Key words** : North Korean Defector, Criminal Behavior, Victim, Security Police, Personal Protection Police